SK케미칼, PET 생산 40만톤 확대

Wlocawek 플랜트 2004년 가동 ... Rafineria도 생산단지 건설키로

SK케미칼 및 Rafineria Czechowice가 폴란드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생산능력을 대규모 확대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현재 건설중인 PET Bottle Resin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004년 가동 이후 증설할 계획이며 정제기업인 Rafineria Czechowice는 다운스트림을 확대할 목적으로 Czechowice에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및 PET의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폴란드 Wloclawek 플랜트의 PET 생산능력을 2006-07년 12만톤에서 40만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플랜트의 지분 참여율은 SK가 60%,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가 20%, SK글로벌 및 플라스틱 생산기업인 Anwill이 각각 10%씩이다.

SK케미칼은 플랜트의 PTA 요구량 100%를 BP에서 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벨기에 BP의 Geel 생산단지에서 PTA 32만-35만톤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afineria Czechowice는 2억달러를 투자해 PTA 및 PET 각각 1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공은 Lurgi 및 그 계열사인 Zimmer가 맡았고 Eastman Chemical PTA 및 Zimmer PET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Lurgi 및 Zimmer는 또한 프로젝트의 주주기업이다.

Czechowice 플랜트는 2003년 2/4분기 착공해 2005년 말 상업가동할 예정이다. Rafineria는 지분 투자기업을 모색중이며 최근 EBRD가 거론됐다.

Rafineria는 석유화학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정제플랜트가 오래되고 정제능력이 100만톤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연료의 황산함유량을 규제하는 European Commission의 환경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Rafineria는 PTA 및 PET 프로젝트의 투자를 마무리한 뒤 정제플랜트를 폐쇄할 것이나 Paraffin, Lubricant 및 Asphalt의 생산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유럽 및 동유럽의 PET 소비량은 약 50만톤이며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충당된다. PET의 지역적 소비량은 청량음료 병과 같은 패키징제품의 수요급증에 힘입어 2008년 11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케미칼은 유럽에서 PET 약 12만톤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에 Production Source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Wloclawek이 중부유럽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K케미칼은 Wloclawek 부지에 몇몇 특수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수처리제 및 SK의 기타 국내생산 제품을 현지 공급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5/28>